

### 이홍재의 세상만사

## 장병우 판사를 위한 변명



논설고문

그동안 변명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글을 쓴 적이 몇 번 있다. '강용석을 위한 변명' '김윤석을 위한 변명' 등이 그것이다. 그런 글을 썼던 것은 결코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세상만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일이 터지면 모두들 흥분부터 하고 보는 세태가 싫어서이기도 했다.

어느 신문을 들추어도 같은 목소리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 논객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 모두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때 나머지 두의미하게 돌 하나를 더 보태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시작하는 '장병우를 위한 변명'도 마찬가지다. 그와는 일면식이 없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주위의 좋은 평가를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돌을 맞을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장병우 판사에게 '일당 5억 노역' 판결은 무거운 멍에가 됐다. 여론재판에 몰린 그는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옛것과 그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사표를 수리했다.

장 판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 달라진 인심 망가지는 개인

사표 제출에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 또한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심장이 약하고, 여동생은 한쪽 눈의 꺾꽂이 터져 실명될지도 모르고, 가족들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로 돌아가 보자. 지금은 정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당시엔 지역경제를 위해 대주주들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그리고 심지어 신부와 목사까지 나서서 광주지검에 건의서를 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경제단체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해남지역 각계 인사들도 탄원서를 냈다. 당시 신문들 들춰 보니 한 지방지(7일보)의 사설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어찌됐든 검찰은 피고인의 벌금 부분에 대해

서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 선고유예 구형은 허재호 회장이 당시 508억 원 규모의 탈루 세금을 모두 완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조세포탈의 경우 특기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야 하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환수라는 과세당국의 목적이 달성되면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김정범(51·28기)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유력 기업가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아무튼 당시 장병우 판사의 재판부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법(法) 정의 실현을 외면하지 않았다. 선고유예로 바꾸지 않고 50일 정도의 노역을 명령한 것이다. 이는 경제사범들에게 수백억 원 벌금을 선고유예로써 면제해 주던 이전의 다른 판결에 비해 엄격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차라리 그때 통째로 바꾸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사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이후 지나치게 한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 판결 하나만 판사의

삶 전체를 낙인찍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장 판사에 대한 동정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는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장 판사는 밝고 싶은 선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저만큼 됐으면 싶은 선배였다."고 했다. 40대의 한 지역 법관도 "당시 재판의 판단 근거는 분석적이지 않고 함관제의 폐단을 운운하고 지역법관들을 토착세력화 시키려는 판사로 매도하는 식의 시선은 옳지 않다."고 했다. 사실 지금은 다들 잊었겠지만 당시 판결에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하청업체들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었다.

### 서민들의 분노 이해하지만

최근 장 판사의 자택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쏠리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청빙까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수억 대출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데도 마치 엄청난 비리나 저지를 양 마구 매도해도 되는 것일까. 서민들의 분노야 백번 이해하지만 그렇다 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 이 글을 쓰기로 맘먹었던 엇그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 화가를 만났다. 한잔 같이 하다 보니 그가 장 판사와 동기동창인인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 오간 '카톡'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때는 옳다고 여겼던 선택에 대해 지금에 와서는 자책도 하고 비난도 받고 하는 일은 너무도 많다. 지금 잘못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때 잘했다고 추켜세우던 사람들이다. 그게 인심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로 건네자 장 판사가 답을 보내왔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을 비정상상으로 몰고 가는 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거둡니다. 제가 이성에 서건 전생애서건, 어떤 작은 증거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아니라고 절규하는 사람의 말을 외면한 업보라니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것이려니 하고 지내겠습니다. 이제 법관으로서의 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고... 들년에는 새 풀이 돋아나고 수양버들이 벌써 어린 잎을 띄워 바람에 날립니다. 봄꽃들도 지천으로 피어납니다. 계절의 눈물겨운 순환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같은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병우 올립니다."

## 전남 '공중 목욕탕' 사업 전국 확산

정부, 벤치마킹...전국 16곳에 설치

전남도가 목욕탕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이 정부 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의 농촌에 설치된다. 전남도의 공중목욕탕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다른 관심을 보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현장에 보내면서 유명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독거 노인의 고독사·자살 예방 차원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은둔형' 노인에게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적어도 1명 이상과 친구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60개 기관은 56개 시·군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44개 시·군에 ▲함께 모여 식사·취침할 수 있는 '공동생활 홈' 26개 ▲기존 마을회관 등에 조리·식사 설비를 추가한 '공동급식시설' 20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목욕탕' 16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생활 홈은 나주시 동강면 월송마을, 해남군 송지면 미야마을, 영암군 학산면 독천마을, 장성군 동화면 안곡마을, 완도군 청산면 도청마을에 조성된다. 또 공동급식시설은 나주시 동강면 송암마을에 마련되고, 작은 목욕탕은 영암군 서호면 장촌마을,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에 만들어진다.

전남도의 공중목욕탕 사업을 본 딴 작은 목욕탕은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등 전국 16개소에 조성된다.

한편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314억원을 들여 농어촌 127개면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주민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목욕탕이 생긴 뒤 노인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D-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 가보니

## 전시관·교통 등 준비 완벽 '성공예감'

30m 유리타워 등 볼거리 풍성

예매 50만장...개막前 목표 초과달성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월11일~5월11일) 개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제관 및 4개 전시관 시설풀공사를 마친 완도군의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전남에서는 세 번째,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초의 국제 규모 이벤트다.

11일 개막까지 7일 여행 연습 등 완벽 준비 = 해조류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 개최 후 완도 비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산물 시장을 기반으로 해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박람회장은 완도해변공원과 완도항을 중심으로 하는 주행사장과 광고포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행사장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주행사장 총 연장은 약 800m이며 면적은 5만2636㎡다.

박람회장 랜드마크 유일 고정시설 '주제관' = 이번 박람회 주제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로, 조직위는 관람객이 쉽게 주제를 알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물을 구성했다.

주제관에는 생명의 바다, 해조류의 주제 영상관이 설치되며, 박람회 이후에는 해조류 관련 제품 전시, 판매, 수출상담 등 해조류산업 촉진기반 시설로 쓰일 예정이다. 중심 부분에 조각유리로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을 일주일 앞둔 3일 공사 관계자들이 박람회장 주제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만들어진 30m 높이의 유리타워가 서 있고, 조형 시설이 설치돼 있어 완도항의 야경을 연출하게 된다.

시내까지 도보로 30분, 사전예매율 100% 넘어 = 해조류박람회장은 전시관별 동선이 짧아 남녀노소 모두 걸어서 관람할 수 있고 박람회장에

서 완도를 시가지까지 도보 30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람객 유치 목표 인원은 70만명이며, 50만장이 넘는 입장권은 이미 사전예매가 끝났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

의 소비시장 규모를 1조원대로 늘리며 해조류 대중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전북과 해조류는 양축이 완도의 미래산업이 돼 전남 해양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老안시려

#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